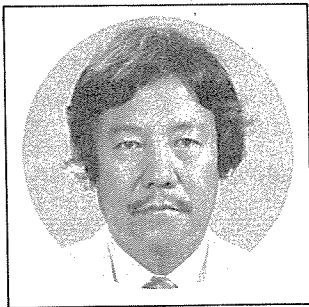


産業디자인과 文化

“機能性 못잖게 文化性 지향해야”



張 潤 宇

〈誠信女大 産業大學院長〉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유용성을 그안에 내포한다.

〈1〉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웨버 및 클라크혼의 정의를 들면 「System of design for living으로서 문화란 어느 집단에 公有된 내면적·외면적인 생활양식의 大系」라고 보며, 일본의 미래학자 林雄二郎씨는 「문명이란 인간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며, 문화란 인간에게 Identity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3세기반전에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적 학문과 기계적 발명의 발전을 인간의 상태를 구제해 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찬양하였다. 그는 인류의 발전을 기계적 발명과 발전에 못박았다.

베이컨은 기계의 인간화가 인간성의 기계화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으리란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로테릭 자이텐베르크는 인간이 창조해낸 기계

가 인간을 무대중앙에서 밀려나게 하고 기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였다. 그가 명명한 역사이후의 인간(post-historic man)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무대를 독차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루이스 멀포오드는 「우리는 지금 역사적 위기 즉, 크나큰 위험과 동시에 찬란한 약속이 共存하는 시기에 있다」면서 예술과 기술 및 문화적 통합으로 블레이크의 비관적 잠언을 「예술은 고양되고, 상상력은 강화되고, 평화가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로 뒤집고 싶어한다.

좋은 예를 찰리·체플린의 1936년도 영화에서 찾아보자.

「모던 타임즈」라는 제목으로 최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수입개봉되었다.

기계문명의 분업사회에서 개인의 독창성이나 개성을 무시하고 사회조직의 한 부속품이길 요구하는 현대의 갈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高度의 풍자로 표출시킨 체플린은 제작, 감독, 안무, 작곡, 연기까지 겸한 천부의 주인공이다.

당시는 물론 53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

지 그의 작품가운데 가장 흥행에 성공하고 있기도 하다.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술문명에 대한 단순한 비평이나 문명의 비인간성의 고발이 아니다. 그런 시대를 어쭙잡게 살아가는 多感한 떠돌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人間愛이다. 그는 쉽고 정확하게 -바보스런 짓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줄거리는 찰리는 하루종일 나사를 조이는 조립공이다. 시간표에 따라 규제되는 단순작업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조여버리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다.

직장을 찾아 헤매던 그는 우연히 시위 군중에 휩쓸려 주동자로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끌려가는데, 그안에서 역시 우연한 실수로 탈옥법을 체포하게 되어 특별대우를 받으며 편히 보낸다.

석방된 찰리는 실수를 연발하고 차라리 감옥에서 지내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으로 고급레스토랑에 들어가 비싼 음식을 잔뜩 시켜 먹는다. 경찰을 불러 잡아가라고 호통친 그가 호송차안에서 전에 인연이 있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우여곡절끝에 안정을 되찾으려는 찰라 고아구제소 직원에게 소녀를 잃게 된다. 찰나와 소녀-

찾아온 안정과 행운을 버리고 또다시 방랑의 길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간다는 내용이다.

<2>

디자인은 의미있는 질서를 창조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다.

당시는 물론 53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가운데 가장 흥행에 성공하고 있기도 하다.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술문명에 대한 단순한 비평이나 문명의 비인간성의 고발이 아니다. 그런 시대를 어쭙잡게 살아가는 多感한 떠돌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하는 人間愛이다. 그는 쉽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陶工의 진흙은 그릇을 빚지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그릇안의 비어있는 공간이다. 하나의 집은 벽돌로 탄탄히 이루어지나 우리가 사용하기에 결국 필요한 것은 창과 門의 無用性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형을 거치게 되니, 무한한 유용성이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포된다는 그의 持論은 디자인의 존재와 정의를 다시 묻는 방법이다.

빅터 파파넥이 "Design for the real world"를 쓰면서 참고한 문헌은 500권에 달하는 물량이다.

그는 뉴욕에서 수학하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지내기도 했으며,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그보다는 7개국을 다니면서 그곳 학생들 혹은 에스키모族들과 생활하며 주로 신체장애자와 병자, 궁핍한 者와 제3세계를 위한 디자인에 주력해 왔다. 활동중 상당부분이 生體工學. 의료시설등과 관련이 깊음에 유의해야 된다.

陶工의 진흙은 그릇을 빚지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그릇안의 비어있는 공간이다. 하나의 집은 벽돌로 탄탄히 이루어지나 우리가 사용하기에 결국 필요한 것은 창과 門의 無用性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형을 거치게 되니, 무한한 유용성이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포된다는 그의 持論은 디자인의 존재와 정의를 다시 묻는 방법이다.

디자인의 궁극목표는 인간환경과 사용되는 도구를 개선하고 나아가 인간스스로까지도 변혁시킨다.

산업디자인협회는 스웨덴에서 1849년 처음 형성되었다. 비슷한 모임이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결성되었다.

태초에 디자인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디자인은 아니었다. 이 분야의 창설자중 한사람인 헨리 드레이퍼스는 Design for people에서 「산업디자인은 과도한 장식을 제거하는데서 작업이 시작된다. 제품과 사용자의 만남에서 마찰이 생긴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면 그 산업디자이너는 실패한 것이다. 반면 사람들이 안전과 안락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구매의욕을 일으키게 되면 그 디자이너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한다.

미국의 산업디자인 선구자들은 노만 벨 깃데스, 헨리 드래퍼스, 윌터 도윈 티그, 해롤드 반도렌, 레이몬 레비 등인데, 경제공황기에 좀더 나은 외관과 보다낮은 제조원가를 위해 공헌한 산업디자이너들의 공헌은 크다.

1945년, 전쟁이 끝난 이후 뉴욕타임즈는 김벨상회의 개당 25달러인 불펜 全面廣告를 게재하였다.

헤럴드 스퀘어는 월요일아침이 되자 문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김벨상회의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이 출동되어야할 형편이었다. 불펜구입을 위한 줄서기에 자리값으로 5센트에서 10달러까지 거래되고 드디어 수요일 고객 한사람에 불펜 1개씩만을 팔기로 결정할 때까지 한개에 50달러, 60달러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5주간이나 계속 되었다니 그 이유는 전쟁말기 시장에서 유일하게 완벽히 완성된 상품이였기 때문이었다.

流線形의 이론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비행기, 자동차나 물속을 빠르게 갈 수 있는 배에 이용되는 동시에 아름다운 외관을 주고 있기에 이러한 저항이 필요하지 않는 모델에도 한 때 모든 유행의 대명사처럼 퍼진 적이 있었다. 이것은 기능과 형태와 美의 관련을 말해 준다.

이미 1938년에 안소니 버트램은 「제품의 구매

디자인이란 어휘조차 생소하여 도안, 고안, 계획, 설계, 下圖, 의장 밑그림 등 제멋대로 불리우던 시대에서 서울대 미술대학에 응용미술과, 홍익대에 공예과가 신설되고, 오늘에 이르러 산업디자인과가 전국 각 대학에 독립 운영되기까지 갖은 수모를 참아야 했던 것은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뭉치게 만든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산업에 디자인이 동원되고 디자인 없는 제품이 있을 수 없게된 세계의 기업들은 다투어 디자인실을 보강하고 산업디자이너의 위치를 높여주기에 이르렀다. 오늘의 디자이너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설계, 판촉, 데이터, 경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조립하고 책임을 갖는 美의 調理師인 동시에 사회적 기술자이고 조직자라고 말한다.

자인 대중들은 모든 생활속에서 디자인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고 했으며, 「그들은 디자인 이외의 다른 예술로 도망칠 수 없다. 그들은 읽지 않아도 되고 그림을 보지 않거나 음악을 듣지 않거나 극장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디자인을 피할 수는 없다」고 스티븐 베일리가 덧붙였다.

모든 산업에 디자인이 동원되고 디자인 없는 제품이 있을 수 없게된 세계의 기업들은 다투어 디자인실을 보강하고 산업디자이너의 위치를 높여주기에 이르렀다. 오늘의 디자이너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설계 판촉, 데이터, 경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조립하고 책임을 갖는 美의 調理師인 동시에 사회적 기술자이고 조직자라고 말한다.

〈3〉

日帝의 암흑기를 거쳐 광복을 맞은 이듬해 1946년 5월 大韓産業美術家協會가 祖國光復展을 가졌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회에 이르는 회원전과 24회의 신인공모전을 개최했다.

디자인이란 어휘조차 생소하여 도안, 고안, 계획, 설계, 下圖, 의장 밑그림 등 제멋대로 불리우던 시대에서 서울대 미술대학에 응용미술과, 홍익대에 공예과가 신설되고, 오늘에 이르러 산업디자인과가 전국 각 대학에 독립 운영되기까지 갖은 수모를 참아야 했던 것은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뭉치게 만든 단체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상업미술가협회(1963), 생활미술연구회(1-949), 한국응용미술가협회(1961), 한국그래픽아트회(1963), 한국상업미술가회(1963), 한국선전미술회(1965), 한국공예가회(1965 현 한국디자인협회 前身) 등이 이합집산되고 현재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협회(KSID),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 KDC展, 産美展이 민간주도의 메머드 그룹을 우뚝하게 지키고 있다.

産學一體의 표본으로 수출상품 및 국내 디자인 개선을 목표로 창설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는 11회째인 1976년 9월18일자로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23회의 공모전을 무리없이 치르고 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KDPC) 주관행사의 일환이며 KDPC (Korea Design & Packaging Center)의 설립취지와 운영에서 그간 논란이 있음은 도약을 향한 진통으로 여기고 산업디자인의 종합화, 문화적 기능의 고양도 함께 수양될 줄 안다.

기업이미지의 통일과 訴求를 위한 CIP작업과 세계적 추세인 DECOMAS가 한국의 산업과 사회에 활발히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은 일이나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시점에서 저우기 다행한 일이다.

知的所有權소급적용과 개방확대요구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개방정책이 우리 산업디자인계에도 숨가쁘게 몰아닥친다.

井中之蛙의 안이하고 我執의 몰이해시대는 살아진다. 허나 表皮의인 변화, 눈가리고 아웅하는 式의 糊塗策이 구석에 널려있을 때 내면적인 성숙, 국제간에 水平的의 同伴으로서의 문화적 수준과

기업이미지의 통일과 訴求를 위한 CIP 작업과 세계적 추세인 DECOMAS가 한국의 산업과 사회에 활발히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은 일이나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시점에서 저우기 다행한 일이다. 知的所有權소급적용과 개방요구확대에 따른 정부의 과감한 개방정책이 우리에게도 숨가쁘게 몰아 닥친다.

이젠 문화지향적이어야 한다. 성숙된 사회이기에 정신적 의의를 추구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선택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우리 산업디자인은 多品種少量時代를 겨냥 기능성보다 문화성에 목표를 두어야겠다.

제품이나 기업목표는 대중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으며,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확립하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

전망은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굴지의 기업 로고와 마크가 내국업체끼리 표절이라고 지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직은 대량생산과 유통이 목표인 우리 시장 경제와 마케팅이 이젠 문화지향적이어야 한다. 성숙된 사회이기에 정신적 의의를 추구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선택으로 욕구충족하고자 한다.

우리 산업디자인은 多品種少量時代를 겨냥하고 기능성보다-이것은 과학문명이 해결해주므로-문화성에 목표를 두어야겠다. 이젠 유명 브랜드도 흔해서 철회할 때도 있다. 기술, 품질이 평준화되고 가격도 비슷해진다.

마케팅의 지향변천이 ① 제품지향(Product oriented) -제품을 만들면 팔리던 시대에서 제품 자체가 갖고있는 기능과 효과를 重視 ② 매니지니얼 마케팅지향(Managerial Marketing oriented) -대량생산, 판매방식에 의한 제품의 효율화시대 ③ 사회마케팅시대(Social Marketing oriented)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입각하여 제품에서는 高質확보의 시대 ④ 문화지향(Cultural oriented) -제품이나 기업목표는 대중의 문화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으며,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확립하는 시대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에게 문화적 존재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 위기에서 크나큰 위협과 동시에 찬란한 약속이 공존하는 시기에 있다. 모던타임스의 주인공이 되어선 안된다.

삶의 부정을 초래하는데는 전쟁마저도 필요없게 될지 모른다.